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33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33주일 (23. 11. 19.)

*** 오늘 전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워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잠언서 31,10-13.19-20.30-31):

10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11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12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13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잣는다.
20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30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31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1서 5,1-6):

1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밴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 복음(마태복음 25,14-15.19-21):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 전례

본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 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복하시어, 가정과 사회의 좋은 관습을 지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에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337 (미사시작)
봉헌 : 342 (제물 드리니)
성체 : 187 (천사의 양식),
498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 : 77 (주 천주의 권능과)

공지 사항

♣ 교무금 : 구약(舊約)의 십일조(十一條)에서 유래하는데, 신자들이 한 달 수입의 일부를 교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월 봉헌하는 것으로서 주일 헌금과 함께 본당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책정해주신 교무금을 올 해 안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 다음 주일(26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오늘 주일(19일)	다음 주일(26일)
제1독서	정명룡 미카엘	엄기용 안토니오
제2독서	정지원 클라라	장세란 세실리아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변가인 헬레나	엄채윤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계단•화장실	정명룡 미카엘	엄기용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53.36 • 교무금 € 860.00

슬프면 노래하고 기뻐도 노래하고

슬퍼해도 된다.
그러니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뻐해도 된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어떤 감정이 생겨나도 상관없으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어버리면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생기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 홍신자의《생의 마지막 날까지》중에서 -